



보도	2023.10.26.(목) 조간	배포	2023.10.25.(수)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책임자	팀 장	김재갑	(02-3145-8050)
		담당자	선 임	김민호	(02-3145-8052)

'23.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 개 요

□ '23.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39%)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9%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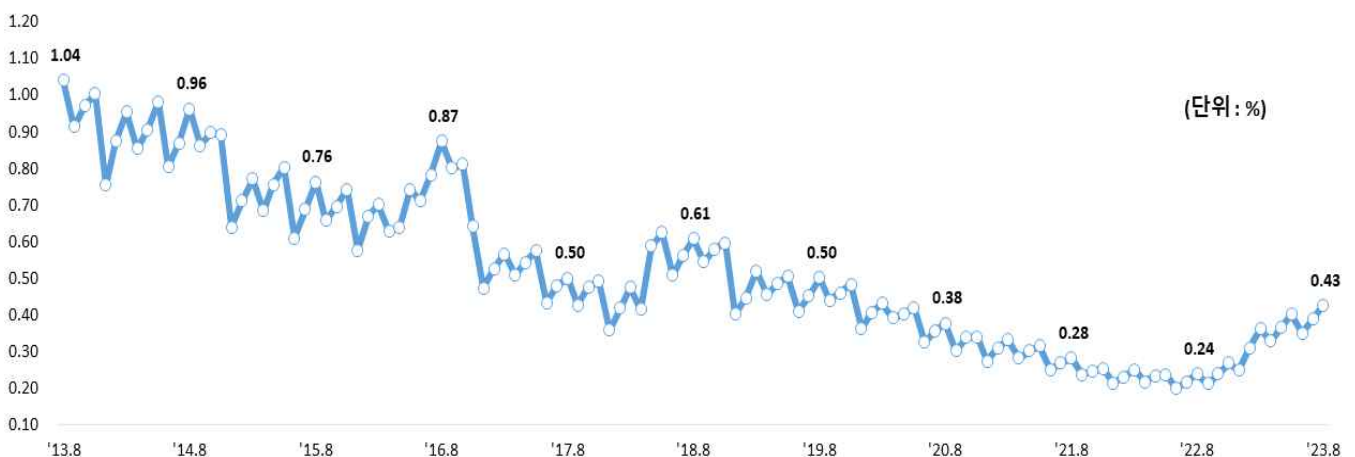
○ '23.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2조원)은 전월(2.0조원) 대비 **0.2조원 증가** 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4조원)는 전월(1.1조원) 대비 **0.3조원 증가**

	('21.8월)	('22.8월)	('23.3월)	('23.4월)	('23.5월)	('23.6월)	('23.7월)	('23.8월)
*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1.0	1.1	1.7	1.8	2.1	2.0	2.0	2.2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0.7	0.6	2.4	0.9	1.3	3.1	1.1	1.4
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	0.3	0.5	△0.7	0.9	0.8	△1.1	0.9	0.8

○ '23.8월중 신규연체율('23.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7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09%)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0.05%) 대비 **0.05%p 상승**]

* 신규연체율(%): ('22.8) 0.05 → ('23.4) 0.08 → ('23.5) 0.10 → ('23.6) 0.09 → ('23.7) 0.09 → ('23.8) 0.10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 부문별 현황

- (기업대출) '23.8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47%)은 전월말(0.41%)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27%) 대비 0.20%p 상승]
- 대기기업대출 연체율(0.13%)은 전월말(0.12%)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말(0.13%)과 유사한 수준]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55%)은 전월말(0.49%)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30%) 대비 0.25%p 상승]
 - 중소기업 연체율(0.59%)은 전월말(0.51%) 대비 0.08%p 상승 [전년 동월말(0.38%) 대비 0.21%p 상승]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0%)은 전월말(0.45%)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20%) 대비 0.30%p 상승]
-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0.38%)은 전월말(0.36%)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말(0.21%) 대비 0.17%p 상승]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4%)은 전월말(0.23%)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말(0.12%) 대비 0.12%p 상승]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6%)은 전월말(0.71%)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42%) 대비 0.34%p 상승]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연체율 시계열 ('13.8월~'23.8월)	'20.8월	'21.8월	'22.8월 (A)	'23.7월 (B)	'23.8월 (C)	증감	
							전년동월 (C-A)	전월 (C-B)
기업대출		0.47	0.36	0.27	0.41	0.47	0.20	0.06
대기업		0.29	0.30	0.13	0.12	0.13	0.00	0.01
중소기업		0.51	0.37	0.30	0.49	0.55	0.25	0.06
중소법인		0.67	0.50	0.38	0.51	0.59	0.21	0.08
개인사업자		0.32	0.22	0.20	0.45	0.50	0.30	0.05
가계대출		0.27	0.19	0.21	0.36	0.38	0.17	0.02
주택담보대출		0.18	0.11	0.12	0.23	0.24	0.12	0.01
가계신용대출등		0.48	0.36	0.42	0.71	0.76	0.34	0.05
원화대출계		0.38	0.28	0.24	0.39	0.43	0.19	0.04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현재까지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과거 장기평균 등 대비 낮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고금리 상황 지속 및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향후 추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추진
 - 거시경제 상황 및 연체율 상승 추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